

완도군 '해양치유 정책' 지속 가능성 인정 받았다

국제슬로시티연맹 우수사례 콘테스트서 '최고상' 수상 오는 9월 해양·문화치유센터 등 공공시설 그랜드 오픈

완도군의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 정책이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지속 가능성을 인정 받았다. 27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열린 2023 국제슬로시티연맹 총회의 국제슬로시티 우수사례 콘테스트에서 최고상인 '오렌지 달팽이 상(Chiocciola Orange 2023)'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오렌지 달팽이 상은 국제슬로시티연맹 33개국 288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슬로시티 정

신을 잘 실천한 도시에 수여하는 최고 상이다. 완도군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 정책' 부문에 완도의 해양 환경과 해양 자원을 활용한 해양 치유 정책으로 공모에 참여했다. 군의 지역 특화 산업인 해양 치유는 현재와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지역의 생산 활동, 관광 발전 등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고점을 받았다. 해양치유는 깨끗한 해양 환경 속에서 해양기후와 해풍, 바닷물 등 해양 자원



완도군은 지난 24일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열린 2023 국제슬로시티연맹 총회의 국제슬로시티 우수사례 콘테스트에서 최고상인 '오렌지 달팽이 상(Chiocciola Orange 2023)'을 수상했다. (완도군 제공)

을 이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으로 완도군은 국민 건강 선도는 물론, 많은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해 해양 치유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군은 청정한 대기질, 깨끗한 바닷물, 다양한 해양 생물 등 해양 치유 산

업의 최적으로 평가받아 2017년에는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노르딕 워킹과 해변 명상, 필라테스 등 해양 치유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16개의 치유 요법 시설을 갖춘 해양치유센터와 더불어 기후 치유, 문화 치유센터 등 공공시설을 그랜드 오픈 할 예정이다. 신우철 군수는 "이번 수상으로 슬로 시티 완도의 해양 치유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슬로시티 정신인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슬로시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2007년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잘 어우러진 청산도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선정됐으며 2018년 세 번째 인증을 받으며 군 전역이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원도=윤보현기자

해남군,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메카 조성

전국 최대 규모 연구단지 조성...내년 착공·2026년 운영 295억 투입...전남 과수연구소·군 농업연구단지 집적화

해남군이 국립기후변화대응센터가 들어서는 삼산면 평활리 일원을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메카로 조성한다. 27일 해남군에 따르면 국립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에 발맞춰 약 60ha의 전국 최대 규모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에는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전남도 과수연구소(25ha), 군 농업연구단지(30ha)가 들어서게 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기에 통과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올해 토지 보상비와 기본 설계비를 확보한 가운데 하반기에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대응센터 세부 역할과 건축에 대한 기본계획

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의 본부로서 전국 도 단위 농업기술원을 지역센터로 활용, 기후와 밀접한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2026년 운영을 목표로 내년 설계 용역에 착수, 하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 295억원이 투입되는 전남도 과수연구소는 대지면적 25ha 부지 내 지상 2층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를 비롯해 비닐하우스, 온실, 노지실종포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해남군에서 조성하는 농업연구단지에는 고구마 연구센터, 청년농업인 입



대농장,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등 해남의 미래농업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기반이 구축된다. 군은 지난해 9월 군 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자문단 의견을 반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지 구성을 통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다음 달 입안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

고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해남 유치 이후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며 "민선 8기 농업연구단지 조성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료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기자

영광군, '떡 산업'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법성포단오제서 떡산업식품품 홍보부스 운영

영광군이 모싯잎송편 등 떡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7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3 영광법성포단오제 행사장에서 (사)영광에서 모싯잎 떡을 만드는 사 람들과 연계해 영광지역 떡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광 떡 산업 식품품'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대표 특산품인 영광 모싯잎송편 외에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떡 제품들을 기획 전시, 홍보했으며 최근 떡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떡 제품과 지방소멸 및 기후 위기를 막는 영광 떡 산업 시장에 대한 홍보를 추진했다.



등학생 30명을 초청해 할매니얼 디저트류 제품 시식, 떡메치기, 제철 모싯잎차 다도 클래스 체험 행사도 진행했다. <사진> 고윤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광 모싯잎송편 등이 추석 명절에만 찾는 떡이 아닌 비수기 없이 꾸준히 판매될 수 있도록 다양한 떡 제품들을 육성 지원해 '초심' 강조 마케팅 및 지방소멸과 기후 위기를 막는 대표 특산자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관내 25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지리표시 제104호 영광 모싯잎송편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미국 수출 제품 ▲농촌진흥청 기술 이전 제품 ▲가업 승계 청년창업 떡집 ▲영광 보리 모싯잎산업특구 ▲지역농산물 활용 답례품 ▲건강 기능성 떡류 제품 등 다양한 구성으로 기획, 운영했다. 또한 기후 위기를 막는 지역 농산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광주지역 초

우승희 영암군수, 지역 사회와 소통 강화

사회단체장과 간담회 개최 군 현안 설명, 건의사항 수렴

영암군은 27일 "우승희 군수가 민선 8기 1주년을 앞두고 최근 영암군민회관에서 사회단체장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역 사회단체장과 임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암군의 현안과 사업추진 현황 등이 설명됐다. <사진> 영암군이 지역 사회단체장 전체를 초청해 소통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민선시대 최초로. 우 군수는 지역 사회단체가 제기하는 각종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대화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영암 쌀 증장기 발전전략 수립 ▲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월출산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



운영 ▲영암경찰서 기존 부지 활용방안 강구 ▲어린이 문화센터 개설 등이다. 우 군수는 관련 부서 검토 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민선 8기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승희 군수는 "지역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사회단체가 영암 혁신을 주도해줄 바란다"며 "오늘처럼 소통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 예정이니 광범위한 참여와 함께 '영암사랑', '소통포' 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지역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목포미래포럼' 기후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목포시의회 연구단체)

방향성 논의·활동계획 공유 기후위기 극복 공감대 형성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목포미래포럼'은 "최근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목포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목포미래포럼' 소속 최현주 의원(회장)을 비롯해 송선우·백동규·이동수·박유정 의원과 이성주 전남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처장, 정충신 목포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국장, 김영관 목포시지속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목포시 기후환경과 관련된 방향성을 논의하고 향후 연구단체 활동 계획 공유 등 상호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시민 참여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의 중요성에 대한 공

감대를 형성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관련해 의회에서 연구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앞으로 다양한 연대와 정보 공유를 통해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주 대표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목포시 의회와 다양한 시민단체가 기후위기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며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목포형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기후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목포시에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목포미래포럼은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기후학교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강의(6-7월) 등 관련사항을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목포=정해선기자

'글로벌 사랑방' 나주시가족센터 신축 개관

5층 규모 생활SOC복합시설물...다목적 소통·교류공간 등 갖춰

나주시는 "최근 가족센터 가족애(愛)뜰에서 윤병태 시장, 이상만 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사회복지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센터 개관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나주시가족센터는 사업비 102억원(국비39억원·시비63억원)이 투입돼 주차타워가 포함된 생활SOC복합시설로 건립됐다. 2019년 건립사업 확정 후 2021년 8월 착공, 지난해 10월 준공됐다. 센터는 지상 5층, 연면적 1천773㎡ 규모로 1-2층은 가족센터 공간으로 2층 일부와 옥상층까지는 주차장(163면), 전기충전소(2기) 등이 들어섰다. 1층 다목적 소통공간에는 센터 사무실, 공동육아나눔터, 언어발달교실이, 2층 교류공간에는 다목적 강당, 가족

요리실 등이 조성됐다. 2007년 개관한 나주시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른 시민 욕구 충족과 부모들의 육아 정보 공유, 아동 놀이 공간, 돌봄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맞춤형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글로벌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윤병태 시장은 "신축된 나주시가족센터가 육아 정보공유, 놀이, 돌봄 기능을 갖춘 글로벌 가족 소통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가족의 건강성 증진 및 가족관계 향상,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통합 지원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춘환기자

신안 '섬 수국축제' 성료...2만명 다녀가

수국의 섬 신안 도초도 수국정원과 환상의 정원 일원에서 열린 '섬 수국축제'에 2만여명이 다녀가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7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배로 가는 100만 송이 수국축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수국센터를 개관해 방문객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

고, 1층 전시실에 수국을 주제로 한 유명 작가의 작품도 전시했다. 도초도는 목포에서 54.5km 떨어진 섬으로 선박을 이용하는 불편한 교통 여건에도 불구하고 2만여명이 수국을 즐겼다. 2023년 한국관광공사 강소형잠재관광지 육성사업에 공모 선정된 '도초 환

상의 정원'과 영화 '자산어보' 촬영지로 유명한 도초도에서 열린 이번 섬 수국축제는 신안군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2023년 찾아가고 싶은 여름 섬"으로 선정돼 이번 여름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방문하게 될 대표 관광지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수국축제장에는 마이크로필라, 산수국, 목수국 등 100여종의 100만송이 수국이 피어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수국의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활발하게 교류하며 꽃을 감상하고 즐기는 모습이 큰 인상을 줬다. 축제는 마무리됐지만 수국은 다음 달 중순까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오는 9월에는 가을 목수국과 팜파스그라스를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경환 추진위원장은 "섬 가을 수국축제에서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안=양홍기자